

영어문장의 정보가치에 대한 연구

고 태 홍*

목 차

- I. 서 론
- II. 문장의 초점과 정보
- III. 분열문의 정보제약
- IV. 존재절과 정보
- V. 결 론

I. 서 론

말은 화자측에서 청자측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그 주된 기능이다. 이 정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본다. 하나는 청자측에서 볼 때 미지의 정보이고, 또 하나는 화자나 청자가 이미 알고 있는 기지의 정보이다. 전자를 신정보라 하고 후자를 구정보라 한다. 신정보·구정보의 개념은 지금까지 화제-평언(topic-comment), 혹은 초점-전제(focus-presupposition) 등과 같은 개념으로 설명되어 왔다. 이처럼 화제나 전제는 알려진 정보이다. 그리고 유표-무표(marked-unmarked)로 설명하자면, 신정보는 유표, 구정보는 무표가 된다. 이 신·구정보는 보통 주어, 술어의 개념으로 표면형식에서 나타난다. 또 억양도 그 표면적인 표현이다. 이처럼 정보는 구어체 또는 문어체 영어에서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전달되기 때문에 언어현상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론에 이어 제Ⅱ장에서 문미초점과 대조초점, 신정보와 구정보, 어순과 정보 효과, 정보의 범위등을 살피고, 제Ⅲ장에서는 분열문의 초점제약, 분열문내의 초점과 전제, 유사분열문을 이용한 강조형식을 연구하려 한다. 제Ⅳ장에서는 문어체에서의 존재절의 효과, 존재절내의 개념적 주어에 가해지는 제약과 존재절의 be동사외에 사용될 수 있는 기타 동사들을 연

*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Dept. of English Language Edu., Cheju Univ., Cheju-do, 690-756, Korea)

구해 봄으로써 영어문장의 구성요소들간의 정보가치를 체계적으로 규정해 보려 한다.

Ⅱ. 문장의 초점과 정보

1. 문미초점과 대조초점

언어란 의사소통의 체계 (communication system)이다. 사람들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말하고, 여러가지 상태를 기술하고, 감정을 토로하거나 정보를 묻고, 무엇을 요구하고, 지시를 하는 등의 언어행위에 참여한다. 구어체영어에서, 화자는 강세 (stress)와 억양(intonation)을 사용하여 직접적으로 청자로 하여금 자신의 말을 이해하게 한다. 이러한 의사소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발화(utterance)는 여러가지 정보단위를 나타내는 음운론적인 성조군(tone group)으로 나누어 진다. 성조군이란 하나의 핵(nucleus)을 포함하는 강세음절과 비강세음절의 연속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 대체로 여러개의 성조군은 휴지(pauses)에 의해 분리되고 각 성조군 안에 들어있는 핵은 정보의 초점, 즉 중요한 정보단위가 되는 부분을 나타낸다. 따라서 핵이란 하나의 성조군에서 소리의 높낮이(pitch)의 방향이 뚜렷이 바뀌는 강한 강세를 받는 음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Downing & Locke 1991 : 238)

- (1) It is absolutely in CREdible.
- (2) I'm going to the SWIMming-pool.
- (3) Is he likely to WIN?

대체로 문두의 부사류를 제외한 절의 첫 위치에 있는 요소는 주제(theme)라고 할 수 있다. 정보초점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요소를 제외한다면 주제는 일련의 전달내용을 전달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절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Quirk & Greenbaum(1973 : 411-12)은 독립절에서 무표적 주제(unmarked theme)는 주어, 조작어, wh-구, 명령문의 동사 등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

- (4) He bought a new house. (Subject in a statement)
- (5) Did he buy a new house? (Operator in a yes-no question)
- (6) Which house did he buy? (Wh-element in a wh-question)
- (7) Buy a new house. (Main verb in a command)

주제와 초점은 절안에서 분명히 다르다. 한 쪽은 시발점이고, 다른 하나는 종결점이다. 주제는 절에 있어서 다른 어느 부분보다 이미 알고 있는 정보인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이 두개는 일치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초점이 주어에 놓이는 경우이다.

- (8) BILL gave it to me. (Who gave you that magazine?)

보통 주제의 기능을 취하지 않는 요소라도 절의 주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제로서 눈에 띄

게 하기 위해서 문두에 놓는 요소는 다양하다. 한 예로서 격식을 갖추지 않은 구어체영어에 있어서 한 요소가 핵강세를 받아 전치되어 주제나 정보에 있어서 유효적이 된다. (Quirk & Greenbaum, 1973 : 412)

- (9) JOE his NAME is. (SC as theme)
- (10) RelaxATION you call it! (OC as theme)
- (11) Really good COCKtails they made at that hoTEL. (DO as theme)

유효적 주제의 두번째 형은 수사적 문체 (rhetorical style)에서 절안에 있는 두개의 요소사이에 대조를 나타내는 형식이다. 이러한 절에는 가끔 두개의 정보초점이 있는데 하나는 핵강세가 주제에 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절의 뒷 부분에 오고 있다.

- (12) His FACE I'm not FOND of (but his character I despise). (prepositional complement as theme)
- (13) ... but his CHARacter I despISE. (DO as theme)
- (14) RICH I MAY be (but that doesn't mean I am happy). (SC as theme)
- (15) (I've promised to do it,) so do it I SHALL. (predication as theme)
- (16) In LONdon I was BORN, and in LONdon I'll DIE. (A as theme)

문장에서 가장 새로운 정보가 담긴 중요한 핵이 되는 부분을 정보의 초점이라 한다. 대체로 문미초점과 대조초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아무런 전제가 없을 때 초점은 문미의 내용에 오는 것을 문미초점이라 한다면, 전제된 문장의 내용과 대조되는 새로운 정보에 오는 초점을 대조초점이라 한다. 이러한 대조적 초점은 문의 앞쪽으로 오게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절의 끝자리 이외의 어느 요소에도 나타날 수 있다. 이처럼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구문상의 기능과 의미상의 역할을 살펴볼 때 어순(word-order), 음율(rhythm) 등이 의미전달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 (17) John was born in New York.
- (18) A: Who was born in New York?
B: John was (born in New York).
- (19) A: John was married in New York, wasn't he?
B: No, he was born in New York.
- (20) A: I hear you're painting the bathroom blue.
B: No, I'm painting the living-room blue.
- (21) A: Have you ever driven a Cadillac?
B: Yes, I've often driven one.
- (22) Who are you working for (not with)?
- (23) He was speaking to me (not to you).
- (24) I put them on the bed (not under it).
- (25) I'm afraid that bureaucracy can be worse than autocracy.

위 (17)은 문미의 내용어에 초점이 온 경우이고, (18)~(21)의 밑줄친 부분은 각각 괄호 안과 같은 질문이나 의문을 전제로 했을 때 제1강세가 주어지는 부분으로서 신정보가 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구정보에 속하고 있다. 또 (22)~(25)는 전제된 문장의 내용과 대조되는 새로운 정보에 초점이 오고 있다. 또한 보통의 경우 같으면 문미초점이 나타나지 않는 항목에 핵강세를 줌으로써 대조적 강세를 표시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23)과 (24)에서 대명사나 전치사와 같은 기능어가 강세를 받는 경우이다. 때로는 대조를 나타내기 위해서 정상적인 어강세의 자리를 바꾸어 단어의 일부분에 초점이 오기도 한다. (25)에서 정상적인 어강세와 그에 따른 핵강세(nucleus prominence)는 bureaucracy와 autocracy 처럼 둘째 음절에 온다.

하나의 정보단위를 이루는 문장에서 조차도, 신정보는 반드시 문미에 위치해 있는 단어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 (26) Mary uttered a piercing scream.
 (27) The old man slowly raised his head.
 (28) Such people should be put behind bars.
 (29) My doctor advised hospitalization.

위 문장에서 신정보가 문미의 요소에만 내포한 것은 (29)의 경우 뿐이다. 이 이외의 (26)~(28)에서는 문미초점의 범위가 술부까지 확장되고 있다. 그 결과 이러한 기승이 암시해 주는 것은 오직 신정보만을 표현하는 단 하나의 성조군과 일치하는 문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장은 종종 대화의 초기에 혹은 대화의 주제를 소개할 때 발견된다.

흔히 문장이 하나의 성조군과 일치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변적 요소(peripheral elements)가 내포되지 않은 짧은 문장에 국한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문장은 하나 이상의 성조군으로 분할되는 경향이 있다.

- (30) We regret to inform you / that your application for supplementary assistance has been rejected.

따라서 문장에는 하나 이상의 정보단위와 하나 이상의 절구조도 포함될 수 있다. 예컨대 등위 접속이라는 문법적 장치에 의해 하나의 문장에 하나 이상의 정보단위가 포함된다는 것이다. (EK and Robat, 1984 : 408-09)

- (31) John is either HELD UP | or he is ILL.
 (32) Mary studies ENGLISH | Joan FRENCH.

위 문장의 등위접속을 무시하고, 또 주변적 요소가 있더라도 무시되었을 때 독립적 상황에서 주 정보(main information)는 보조정보(subsidiary information) 즉 held up 이나 English같은 요소뒤에 놓이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 문장단위에서의 신정보나 구정보의 구별은 하나의 성조군으로 나타나는 절에서

문미초점의 원칙을 적용하면 되겠다. 다음문의 밑줄친 부분이 신정보가 된다.

(33) Your money will be refunded if you are fully satisfied.

(34) When it was obvious that they were not going to give in, Morrison left the office in a fury.

문미초점의 원칙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서 길거나 문법적으로 복잡한 요소는 문미의 위치에 두려는 또 다른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문미중점의 원칙(principle of end-weight)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두 원칙은 다음의 예에서 보여주듯이 주정보 제공에 있어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35) I heard yesterday a strange story of how someone had nearly been buried alive. (end-weight)

(36) I heard a strange story yesterday. (end-focus)

(36)에서 핵을 다른곳에 배치시킬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예를 들어 어떤 요소를 수정하거나 강조하기 위해) 정보의 초점이 마지막 단어(yesterday)가 아니라 마지막에서 두번째 단어(story)에 떨어지고 있다고 본다. EK & Robat(1984 : 409)는 이를 문미전초점(pre-final focus)이라 하고 있다. 이 경우 a strange story는 신정보이고 yesterday는 보조적인 준구정보(semi-given information)라 보고 있다. 이러한 보조정보가 될 수 있는 단어들은 today, tomorrow, last night, last week, the other day 등이고, 이들은 가끔 문맥의존적이어서 주정보를 지닐 수 없다.

[부정관사+특정명사]의 예는 흔히 처음으로 화제에 오르는 문장에서 발견할 수 있다. 화자가 처음으로 화제에 올리는 명사는 화자에게는 이미 구정보에 속하기 마련이고, 청자입장에서 본다면 신정보에 속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정관사는 앞에서 화제가 된 명사가 반복될 때나, 명사 다음에 오는 수식구나 수식절이 명사를 한정할 때 쓰이는 것이 원칙이다. 이처럼 앞 문장에 일단 나왔다가 반복되는 명사 앞에 붙이는 정관사의 용법(37)이 전방조용적(anaphoric)이라면, 뒤에 나온 수식구나 수식절의 한정을 받는 명사앞에 붙이는 정관사의 용법(38)은 후방조용적(cataphoric)이다. 그러나 뒤에 오는 수식구나 수식절의 한정을 받는 명사앞에 정관사가 아니라 부정관사가 나오는 경우(39)도 있다.

(37) Tom bought a TV and a radio, but he returned the radio.

(38) This is the book I bought yesterday.

(39) This is a book I bought yesterday.

(38)과 (39)의 차이는 화자가 책을 샀다는 사실을 청자가 이미 알고 있는지의 여부와 관계가 있다. 즉 화자가 책 한 권을 샀다는 것이 청자에게 구정보에 속하는 경우에 하는 말이 (38)이고, 화자가 책을 샀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청자에게 책을 보이면서 하는 말이 (39)라 할 수

있다.

위에서 지적한대로 특정명사(specific noun) 앞에 정관사나 부정관사가 다 올 수 있지만 명사의 특정성이 화자나 청자에게 모두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정관사가 쓰이고, 그 명사가 지칭하는 것이 특정한 것임이 화자에게만 알려져 있어 구정보에 속할 때에는 부정관사가 쓰인다.

그러나 부정관사 다음에 오는 명사가 (40)과 (41)에서 처럼 화자가 아닌 청자에게 특정한 경우도 있고, (42)와 (43)에서 처럼 [부정관사+명사]가 특정적인가 비특정적인가 가름하기 곤란할 때도 있다.

- (40) You wrote an article on Korean educational system, didn't you?
 (41) I have a book in my hand.
 (42) a) I have a book in my hand. ⇨ (It is an expensive book. / The book is expensive.)
 b) I want to write a book. ⇨ (*It is an expensive book. / *The book is expensive.)
 (43) a) I want to meet a doctor, but my wife doesn't want to meet him.
 b) I want to meet a doctor, but my wife doesn't want to meet one.

(42)a)와는 달리 (42)b)의 문장을 It나 The book으로 시작할 수 없는 까닭은 (42)b)의 a book이 비특정적이기 때문이다. (43)a)에서 a doctor는 어떤 특정인을 가리키며, (43)b)의 a doctor는 비특정인을 나타내기 때문에 (43)a)에서 a doctor가 him으로, (43)b)에서는 a doctor가 one으로 대체된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44)와 (45)도 설명될 수 있다.

- (44) John wants to buy a tape recorder. He will buy it tomorrow.
 (45) John wants to buy a tape recorder. He will buy one tomorrow.

(44)의 a tape recorder는 「그가 어느 가게에서 보고 사려고 마음 먹은 특정한 tape recorder를 가리키지만, (45)의 a tape recorder는 any type tape recorder란 뜻이다.

2. 신정보와 구정보

정보는 구정보와 신정보로 나누어진다. 구정보는 화자가 판단할 때 청자가 이미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정보이고, 신정보는 화자의 판단에 청자가 아직 의식하지 못하는 정보이다. 실제 대화에서 쓰인 어느 발화문의 내용 모두가 신정보인 경우는 드물고, 대개의 경우는 어느 구정보에 신정보가 더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46) The dog chased the mouse.
 (47) a) The dog chased something.
 b) The dog did something.
 c) Something happened.

문미 요소에 초점이 주어질 때 (46)은 세가지로 신·구정보를 나누어 볼 수 있다. (47)a)에서

청자는 개가 무엇을 쫓아갔다는 것을 알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쫓았는지는 모른다고 화자가 생각하는 경우이다. 또한 (47) b)는 청자는 개가 무엇을 했다는 것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모른다고 화자가 생각하는 경우이다. 즉 did something에 맞서는 chased the dog가 신정보가 된다. (47) c)는 청자는 화자가 전달하려는 내용을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는 경우이므로 (46)문장 전체가 신정보가 된다. 위와같은 차이는 다음 물음과 연관시켜 보면 분명해진다.

- (48) a) What did the dog chase?
 It chased the mouse.
 b) What did the dog?
 It chased the mouse.
 c) What happened?
The dog chased the mouse.

위에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신·구정보가 나타낼 수 있는 위치이다. 구정보는 문장의 앞쪽에 신정보는 문장의 뒷쪽에 나타난다면 능동형과 수동형의 차이는 이러한 정보구조의 차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The dog chased the mouse."와 "The mouse was chased by the dog."은 명제내용은 같으나 그 내용을 표현하는 정보가치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능동문에서는 the dog이 구정보이고, the mouse는 신정보이다. 그러나 수동문에서는 the mouse가 구정보이고, the dog가 신정보이다.

신정보와 구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문장에서는 청자에게 이미 알려진 메시지를 먼저 제시하고 아직 알려지지 않은 메시지를 나중에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이처럼 중립적인 상황에서 신정보는 서술문의 뒷부분에 놓이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것은 문미초점과 관련된다.

- (49) [Mary] uttered a piercing scream.
 (50) [The old man] slowly raised his head.
 (51) [Such people] should be put behind bars.
 (52) [My doctor] advised hospitalization.
 (53) [Your car] could do with a wash.

(49)-(53)에서 주어의 기능을 담당하는 명사구는 문두에 놓여있고, 또한 한정적 지시어(definite reference)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구정보임을 시사해 준다. 그러므로 Mary, the old man과 such people과 같은 지시대상들은 앞의 문맥에서 식별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더욱이 my doctor는 공통된 문화적 배경때문에 주어로서 제시되고 있고, your car는 상황적 문맥에 의해 화자는 더러운 차를 보고서, 그 외양에 대하여 논평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49)-(53)에서 신정보는 어느 경우에도 술부에 놓여 있고, 무표적 상황이라면 문미의 내용어나 내용어가 포함되는 구라 할 수 있다.

음운론적인 면에서도 정보의 범위를 생각할 수 있다. 핵강세가 절의 마지막 음절에 나타나면 정보는 절전체가 되거나, 절의 서술부가 되거나, 또는 절의 마지막 요소가 될 수 있다:

- (54) a) We're going to the RACes.
- b) We're going to the RACes.
- c) We're going to the RACes.

이와는 대조적으로 새로운 항목이 절의 앞자리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구어체 영어에서 음울적 형식이 사용된다.

- (55) WE are going to the races. (Who's going to the races?)

해강세가 문미에 오지 않는 요소에 나타날 때에도 몇가지 다른 해석이 가능해진다.

- (56) William WORDSworth is my favorite English POet (not John Keats).
- (57) William WORDSworth is my favorite POet (not William Shake speare).

문장에서 정보구조가 구정보-신정보의 순서로 나타나기 때문에 문장의 주어는 대부분 대명사, "the+명사"와 같은 한정명사구로 표현된다. 그러므로 한정명사구가 주어인 문장이 그렇지 않은 문장보다 어색하지 않다. 이와 관련해서 타동사의 목적어는 한정명사구나 비한정명사구로 표현된다. 그러나 수동형에 있어서, 행위자가 by로 표현되는 경우 거의 90%가 비한정적이다. 따라서 수동형에서 정보의 가치가 없는 by이하 요소는 보통 생략되고 있다. 정보의 관점에서 수동형이 쓰여지는 경우 대개 능동형의 주어를 알 수 없거나, 알려져 있지 않을 때, 또는 능동형의 행위자를 언급할 수 없거나 언급할 필요가 없을 때 쓰이고 있다.

- (58) His father was killed in the war.
- (59) The store has been robbed several times.
- (60) The first electric railway was opened in 1890.

3. 어순과 정보효과

주어가 술어동사의 앞에 위치하는 것은 평서문의 어순으로 대부분의 문과 절에 쓰이는 정상어순이며, 이에 반하여 주어가 술어동사의 뒤에 위치하는 것은 의문문의 어순으로, 이것을 어순전도 또는 도치라 한다. 이처럼 의문문에 있어서의 어순도치는 문법상의 필연에 의한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기타 의미를 강조하고, 감정을 나타낸다든지, 문장의 균형을 취하기 위한, 또는 시에 있어서는 운율등을 맞추기 위한 등의 이유로 어순이 전도될 수도 있다. 어순도치와 관련하여 주어와 주제의 개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보통 주어라하면 한 문장의 주체가 되는 말로서 흔히 명사, 대명사, 수사등이 될수 있다. 반면에 주제라 하면 말이나 연설에서 내세우는 중심이 되는 주요한 제재나 중심사상을 뜻한다. 따라서 영어에 있어서는 주어와 주제가 일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원래는 이 양자가 별개의 개념인 것이다.

주제는 모든 문장에 반드시 포함되는 요소로,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어느 명사구가 주제인가

하는 것이 결정된다. 예컨대, 이동동사를 포함하는 다음 (61)과 (62)에서 the rock와 같이 동작의 대상이 되고 움직여지는 것이 주제이다. 또 처소를 나타내는 동사(verb of location)의 경우에는 일정한 처소에 있는 대상(물)이 주제가 된다. 예컨대, (63)과 (64)에서 명백히 나타나듯이, 주제가 될 수 있는 요소는 이른바 주어나 목적어로 나타날 수 있다. (이정민·배정남, 1982 : 791)

- (61) The rock moved away.
- (62) John rolled the rock from the dump to the house.
- (63) Harman kept the book on the shelf.
- (64) The book belongs to John.

문두의 부사류(adverbials)를 제외한 절의 첫 자리에 있는 요소는 그절의 주제라 할수 있다. 의사소통의 관점상, 서술문에서 문의 마지막 부분에는 신정보/주정보를 전달하는 요소가 놓이는 경향이 있는 반면, 문두의 위치에는 대체로 주어의 기능을 담당하는 요소가 놓인다. 이러한 요소들은 구정보와 관련이 되므로 메시지의 나머지 부분을 전달하기 위한 의사소통의 출발점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요소들은 주제(topic)로 설정되고, 이에 대해 진술하는 것은 평언이 된다. 그러므로 주제-평언의 구분은 문법적으로는 주어와 술부로 분할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논의의 대상을 서술문에 국한 시킨다면, 전치(fronting)라는 문법적 장치는 문의 한 요소를 주어진 자신의 무표적 위치에서 주어 앞 문두의 유표적 위치로 이동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K & Robot 1984 : 414-16)

- a) (65) A nice one you are !
- (66) A proper Charlie I felt, too.
- (67) A lot you may care !
- (68) A charming wife you've got.
- (69) Criminal I call it.
- (70) Up you go.
- b) (71) A Catholic I was born and a Catholic I shall die.
- (72) The actual drilling I don't mind, but the injections I hate.
- (73) Poor he may be, but he is honest, at least.
- (74) My word I gave, so my word I'll keep.
- (75) Support them I couldn't, desert them I wouldn't.
- c) (76) This problem we shall return to in a later section.
- (77) Such reports the police are inclined not to take seriously.
- (78) These bold images we first find in the work of John Donne.
- (79) On top of the pile the juggler placed a glass of water.

(65)-(70)은 비격식 영어에서 사용되는 전치현상인데 화자는 전치되는 요소에 감정적 또는 심리적 색채를 부가하려는 것이다. 화자는 무의식적으로 맨처음 마음속에 떠오르거나 가장 주의를

끄는 내용을 먼저 말하고, 문장의 나머지 부분에는 나중 떠오르는 생각을 덧붙인다. (71)-(75)는 주로 수사적인 또는 과장된 말에서 사용되는 전치현상인데 이경우 전치에 의해 두개의 연속적인 절에 있는 두 가지 명제사이의 균형 내지 대립을 다소 극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75)-(79)는 격식적인 문어영어의 특징을 이루는 형식이다. a)와 b)에 속하는 예문들의 전치된 요소는 신정보를 나타내는데 반해, c)에 예시된 것들은 구정보와 관련된다. 이것은 전치된 요소가 한정적 요소를 취하느냐에 의해 암시된다. 대체로 문장내의 한 요소의 전치는 상황문맥이 있어야 하므로 이들이 독립적으로 쓰여졌을 때 이상하게 여겨진다. 이 경우 문두의 유효적 위치가 주는 효과는 두 가지다. 즉, 전치되는 요소를 선행의 문맥과 연결되게 함으로써 일종의 응집장치(cohesive device) 역할을 한다. 다른 측면으로는 전치가 이루어진 결과 신정보를 전달하며 또 무표적으로 배열되었을 때 문미의 위치에 놓이지 못하는 요소에 문미초점이 두어지게 된다.

위와는 반대로 문중의 요소 전체가 정상적인 무표적 위치에서 문장의 끝으로 이동되면 그 요소는 후치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문의 주정보 처리에 있어서 외치되는 요소는 문미초점의 원칙, 혹은 문미중점의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 (80) It happened / chanced that I had no money with me.
 (81) It is a shame that you have to leave so early.
 (82) It was difficult (for him) to take a decision.
 (83) It is no use crying over spilt milk.
 (84) It suprised me to find them all sound asleep.
 (85) It seems that this is the best we can hope for.
 (86) It looks as if we are going to succeed after all.
 (87) It is a mystery what he was driving at.
 (88) It would be useful if this information could be included in the circular letter.
 (89) I took it for granted that they would join us.

위 예들에서 처럼 주어절이 문미에 놓이게 되면 비어있는 문두 위치는 예비주어(anticipatory subject)의 기능을 담당하는 it로 채워지고 있다. 또 외치되는 절이 의문문, 조건절, 관용어구인 분사, 목적절, 그리고 상승술어(raising predicate)인 경우에도 후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모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립적인 상황에서, 문두의 위치에 놓인 주어는 신정보라기보다는 오히려 구정보를 나타낸다.

이와 관련하여 구동사(phrasal verb)내의 부사적 소사(adverbial particle)의 이동은 흥미롭다.

- (90) a) The government put out a new statement yesterday.
 (What did the government put out yesterday?)
 b) The government put a new statement out yesterday.
 (What happened yesterday?)

위 (90)에서 사용된 put out은 영어에서 빈번하게 쓰이는 타동사적 구동사의 하나로, 부사적 소

사인 out를 목적어 다음의 자리로 옮길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90)a가 보여주듯이 put out가 구정보에 속하고 a new statement가 신정보에 속하는 문맥(context)에서는 out를 a new statement 다음으로 옮기지 않는다. 한편 out가 a new statement다음에 사용된 (90)b)에서는 put a new statement out전체가 신정보에 속한다. 또 put out의 목적어가 대명사인 경우에 out는 당연히 대명사 다음으로 이동한다. 그 까닭은 대명사가 구정보에 속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 (91) *Put out it. → Put it out.
- (92) a) She waved away the offer of help.
- b) She waved it away.
- c) *She waved away it.

원래 후치는 문장을 형성하는 구성요소들 중 어느 한요소 전체가 문미위치로 이동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 요소 중 일부만 문미위치로 이동시켜 이 구요소가 강조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가장 일반적으로 후치되는 요소는 명사구를 후치수식하는 요소, 제한적 관계절, 명사뒤에 놓인 비정형절, 동격 및 전치사구이다 :

- (93) The time will come when hardly anyone can afford a car.
- (94) I met a fellow in the pub last night who told me he had been unemployed ever since he left school.
- (95) The moment he arrived to take more drastic steps.
- (96) A man appeared wearing a black eyepatch.
- (97) You said so yourself.
- (98) The news spread that Saigon had fallen.
- (99) Everyone was saved except the chief engineer.

위 문장들에서 (94)를 제외한 모든 문장들은 불연속 명사구를 주어로 하는 비교적 짝막한 문장들이다. 따라서 후치되는 문미요소에 주정보가 주어지는 것 외에 문미중점의 원칙도 적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절구조에서는 두 가지 유형으로 '주어-동사' 어순이 도치된다. 즉, '주어-조작어'의 도치(subject-operator inversion)와 '주어-서술동사'의 도치(subject-predicator inversion)이다. '주어-조작어'의 도치는 한 요소를 강조하기 위하여 부정의 요소가 문두의 위치에 놓인 절에서 이루어진다. 절구조의 맨앞에 놓여 '주어-조작어'의 도치를 야기시키는 부정어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hardly (...when), never, no sooner (...than), only/not only, rarely/scarcely (...when), seldom 및 no를 수반하는 구

- (100) Hardly had the group reached their destination when the storm broke.

(101) Only after prolonged negotiation did the parties reach a settlement.

(102) On no condition can they be allowed to proceed.

(100)-(102)에서 예시된 '주어-조작어'의 도치의 실예들은 강조하기 위하여 문두의 위치에 한 요소를 배치시킨 결과인 것이다.

반면에 '주어-술어동사'의 도치는 대개 문장의 마지막 부분에 신정보를 배치하기 위하여 주어-술어-조작어를 무표적인 문두위치에서 다른데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주어-술어동사'의 도치인 경우 술어동사는 단순동사구로 실현되고, 주어는 대명사가 아닌 명사구로 실현된다.

(103) Here are/come John and Mary. (cf. Here they are/come.)

(104) Here is your drink. (cf. Here it is.)

(105) There is/comes our bus. (cf. There it is/comes.)

(106) There goes the bell. (cf. There it goes.)

(103)-(106)의 도치된 어순은 비격식적인 영어에 일반적인 것으로 here/there로 시작되는 짝막한 문장에서 존재, 도착, 출현을 알리는 데 쓰인다. (Ek & Robot, 1984 : 424)

'주어-술어동사'의 도치에 대한 다음 예들은 격식적인 문어체 영어에 특유한 것이다 :

(107) Herein li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political parties.

(108) From behind the door came strange muffled cries and grunts.

(109) After the revolution followed a long period of social unrest.

(110) Equally important is the question of how to raise the necessary funds.

(111) Out came the Mayor in all his finery.

(112) Off went the party among loud cheers.

(107)-(112)와 같은 문장들은 전치와 후치가 한데 결합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문두에 위치한 요소들은 술어동사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Ⅲ. 분열문의 정보제약

1. 분열문의 초점제약

분열문(cleft-sentence)이란 Jespersen(1937)의 용어로서 하나의 절(clause)이 자기 동사를 가진 두 개의 절로 분리된 구문을 말하며, 이 경우 주절은 'It is ...'라는 형식을 취한다. 이때 종속절은 전체(presuppose)가 되고, 주절내의 명사가 억양상의 정점(intonation peak)을 이룬다. 일반적으로 주절에 나올 수 있는 것은 (-V)의 속성을 가진 명사구나 전치사구이다.

절의 특정한 요소를 주재와 초점의 두 가지 면에서 돋보이게 하는 특별한 구문인 이 분열문은 한개의 절을 각각 자체의 동사를 포함하는 두 개의 별개 부분으로 나누기 때문에 이렇게 불리어

진다. 분열평서문은 대개 대명사 it에 동사 be가 뒤 따르느는 형으로 시작되어 그 뒤에 초점을 받는 요소가 온다. "John wore his best suit to the dance last night"와 같은 단일절에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분열문을 과생시켜, 각 절안의 특징요소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Quirk & Groenbaum, 1973 : 415)

- 113) a) It was John who / that wore his best suit to the dance last night. (S as focus)
 b) It was his best suit (that) John wore to the dance last night. (DO as focus)
 c) It was last night (that) John wore his best suit to the dance. (A as focus)
 d) It was to the dance that John wore his best suit last night. (A as focus)

분열문은 음조가 나타나지 않는 문어체 영어(written English)에서, 정보의 초점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강조되는 요소는 신정보로서 대조적 초점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외 절의 나머지 부분은 이미 알고 있는 구정보로 해석되며, 문장의 초범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던 다른 항목과의 대립을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예들은 모두 부정문의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예에서 명시될 수 있다.

- (114) a) It wasn't Jim, but John who/that ...
 b) It wasn't to the theatre, but (to) the dance that ...

Ek & Robot(1984 : 417)도 이미론적 요건 때문에 초점위치에 올 수 없는 요소는 주어수식어(subject attribute), 강도의 부사(intensity adjunct), 분립사(disjunct), 공립사(conjunct), 호격(vocative) 등이라 하고, 반면에 초점위치에 올 수 있는 요소들은 주어, 목적어, 시간표시의 부사, 전명구, 전치사의 목적어 등이라고 하고 있다 :

- (115) It is your attitude I object to. (DO)
 (116) It was last summer that we visited Denmark. (time adjunct)
 (117) Is it for this that we have made all these efforts? (purpose adjunct)
 (118) It is the possible repercussions I am afraid of. (pre. complement)
 (119) *It was you I asked the question. (IO)
 (120) *It is foolish call it. (OA)

그 밖에 분열문의 초점위치에 올 수 없는 요소는 문장의 보어, 문장부사와 양태부사, 그리고 (119)에서 보았듯이 문장의 4형식(S+V+IO+DO)의 간접목적어(IO) 등 이다.

- (121) *It is a genius that Bill is. (Bill is a genius.)
 (122) It's dark green that we've painted the kitchen.
 (We've painted the kitchen dark green.)
 (123) *It is obviously that she loves him.
 (Obviously, she loves him.)
 (124) *It was carefully that she did it. (She did it carefully.)

- (125) a) He gave me the book.
 b) *It was me that he gave the book.
 c) It was to me that he gave the book.
 d) It was me that he gave the book to.

(121)의 비문법적인 것은 a genius가 주격보어이기 때문이고, (122)가 문법적인 것은 dark green이 목적격보어이기 때문이다. (123)과 (124)가 비문법적인 것은 문장부사와 양태부사가 초점위치에 와 있기 때문이다. (125) a)에서 어순상 me보다는 the book이 신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125) a)에서 the book이 me보다 정보가치가 높으므로 (125) b)에서 the book을 제치고 me가 초점위치에 올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125) b)는 어색하지만 “The gave the book to me.”를 전제로한 (125) c)와 (125) d)는 물론 자연스러운 문장이다. “He gave me a book.”과 “He gave a book to me.”가 “What did she give you?”와 “Who did she give a book to?”에서 연유된 것이라고 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전자는 book에 후자는 me에 초점이 와 있다. 이러한 의미의 초점/비중의 차이 때문에 위 두 문장사이에서 어순이 차이가 생긴다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분열문의 초점위치에 어휘적 범주(lexical category)나 구범주(phrasal category) 요소만이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절의 요소도 올 수 있다.

- (126) It was because he drank too much that he lost his job.
 (127) It is when you try it yourself that you become aware how difficult it is.

2. 분열문의 초점과 전제

분열문에서 “It is” 다음에 오는 요소가 초점이 된다면 이와는 대조적으로 that 이하에 오는 요소는 전제를 이룬다.

- (128) It was John that broke the window.

(128)에서 that이하가 전제를 이룬다는 말은 「(누군가가) 유리창을 깬다」는 내용을 하나의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유리창을 깬 것이 <누구인가>이다. 다시 말하면 that broke the window는 구정보에 속하며, (It was) John이 신정보에 속하는 것이다. 한편 신정보에 속하는 “It was John”…에는 Mary가 아니라 John이라는 대조적 의미도 내포한다.

분열문은 특히 회화체보다 문어체 영어에서 더욱 요긴하게 쓰인다.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말의 경우에는 강조하고자 하는 요소를 강하게 발음함으로써 강조의 목적을 이룰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분열문은 형식상 문어체 영어의 특징을 이루고 있다.

문장의 어느 요소를 강조하기 위하여 분열문을 사용할 때 초점위치에 오는 요소가 사람인 경우에는 that대신 who, 사물인 경우에는 that대신 which도 쓸 수 있다. 이 경우 it도 예비의 it라 할 수 있다.

(129) It is you who make dress pretty, and dress that makes you pretty.

분열문은 문중의 어떤 구성요소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언외의 다른 요소와 특별한 대조의 의미까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본다. 이 경우 초점이 부정될 때, 대조적 긍정의 전제는 but로 시작하는 구에 의해 표현된다. (Quirk, et al, 1985 : 941)

(130) It's the manager who/that mows the lawn (not a gardener).

(131) It's not the gardener who mows the lawn (but the manager).

(132) It's not the gardener, but the manager, who mows the lawn.

분열문의 "It be"가 논리적 서법조동사를 포함할 수 있다. 또 "It be" 부분과 that 이하의 시제가 (136)-(137)과 같이 다른 경우도 있다. (Quirk, et al 1985 : 588)

(133) It might be Marty who stole the money.

(134) It must be the butler who killed Mr. Smith.

(135) It can't be Peter who wrote this book.

(136) So, it's the butler who killed Mr. Smith (not his wife).

(137) It can't be Peter who wrote this book (Someone else did).

분열문의 초점위치에 주어로서 대명사가 올 때 주격이나 목적격이 쓰일 수 있다. 목적격이 쓰일 때는 비격식영어에서이다. 이때 전제절에 that만 사용된다.

(138) It was I who told the police.

(139) It was me that/*who told the police.

분열문의 초점위치에 부사(구)나, 부사절이 올 때 which는 전제절에 사용못한다.

(140) It was in September *which/that I noticed it.

(141) It was because he was ill *which/that we decided to return.

그런데 who나 which가 that를 대신하는 경우는 있지만, whom, where, why, how등이 that를 대신하지 않는다.

(142) It was in Boston that/*where I met her.

(143) It was yesterday that/*when I realized my folly.

Quirk, et al이 when, where, why, how등이 that를 대신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하여 Swan(1980 : 202)은 It~when등을 분열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144) It was late in the afternoon when I woke up.

일상체 (informal style) 에서 that는 흔히 생략된다.

(145) It's that watch I said I would let you have.

(146) It was that dog I gave the water to.

분열문의 초점뒤에 오는 절은 구조상으로 분명히 제한적 관계절에 가까운 성질의 것이다. 관계절에 사용되는 대명사(who, that, 0대명사)는 분열문을 도입하는 데도 사용된다. 그러나 관계절과 분열문에 사용된 요소에 부여되는 음조(intonation)은 다르다. (Quirk & Greenbaum, 1973 : 416)

(147) It was the DOG I gave the WATER to. (cleft-sentence)

(148) It was the dog I gave the WATER to. (Rel. Clause)

분열문이라는 구조는 의문문, 감탄문, 그리고 종속절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149) Was it for this that we suffered and toiled?

(150) Who was it who interviewed you?

(151) What a glorius bonfire it was you made !

(152) He told me that it was because he was ill that they decided to return.

3. 유사분열문

유사분열문은 wh-관계사가 이끄는 명사절을 주어 또는 보어로서 포함하는 SVC형의 문장이 다. 그러나 wh-절을 유사분열문의 주어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순수한 분열문처럼 유사분열문도 의사전달에 있어서 이미 알고 있는 정보부분과 새로운 정보부분의 구분을 분명히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153) It's a good rest that you need most. (cleft-sentence)

(154) a) What you need most is a good rest. (pseudo cleft-sentence)

b) A good rest is what you need most.

"What~ is~"구문에서는 what다음에 전체가 되는 부분이 오고 is다음에 강조를 받는 초점이 온다. 유사분열문은 한 문장에 나타나는 [-human]의 자질을 가진 요소를 강조할 때 흔히 사용한다.

(155) a) John kicked the ball.

b) What john kicked was the ball.

c) *What kicked the ball was John.

유사분열문에는 who, where, when을 포함한 절도 때때로 허용하지만, 주로 wh-절이 주격보어일 때 한한다. (Quirk and Greenbaum, 1973 : 417) :

(156) The police chief was who I meant.

(157) Here is where the accident took place.

반면에 whose, why 그리고 how는 좀처럼 유사분열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Downing & Locke(1992 : 249-50)가 들고 있는 예에서는 wh-구가 이루는 것까지 유사분열문속에 포함시키고 있다. :

- (158) Where we hope to live is in Padu.
- (159) When the rains come is in November.
- (160) How he got the contract was by bluffing.
- (161) Why he left was that he had a better after.

유사분열문에서 보통 do를 대용형으로 사용함으로써 동사나 서술에 뚜렷한 초점을 두게 할 수 있는데, 이 점이 분열문보다 덜 제한적이다.

- (162) What he's done is (to) spoil the whole thing.
- (163) What John did to his suit was (to) ruin it.

유사분열문의 초점인 보어가 to-부정사일 때 to가 생략될 수 있다.

본래의 문장에 진행상이나 완료상이 들어있으면, 유사분열문에서는 wh-절 안에 나타나는 것이 정상적이다. 진행상의 경우에는 비정형동사절에도 이러한 상이 반영되며, 완료상에 있어서도 자주 그러한 일이 나타난다.

- (164) They are ruining the economy.
→ What they are doing is ruining the economy.
- (165) They have ruined the economy.
→ What they have done is ruined the economy.

무표적 구문에서 문미초점원칙이 적용되어 강조되는 요소는 유사분열문을 사용해서 표현될 때 역시 초점이 대상이 될 수 있다.

- (166) a) He is a complete fool.
b) What he is is a complete fool.
- (167) a) We found the key in the flowerpot.
b) Where we found the key was in the flowerpot.

(166) b)와 (167) b)에서 처럼 유사분열문에서 wh-절이 문두에 나타날 때에는 (168)~(169)에 서 와 같이 문중 어디서나 wh-구가 나타나는 독립관계절의 구문과 혼돈해서는 안된다.

- (168) What he said doesn't concern me.
- (169) I'm not interested in where he was born.

위 독립관계사절의 구문에서는 wh-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정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유사분열문에서는 계사 be뒤 요소에 강조되고 또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정보 또한

신정보가 주어진다. 그러나 독립관계사절에서는 무표적 문형으로 보았을 때, 자연적으로 신정보는 문미에 온다는 원칙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

It로 유도되는 분열문과는 달리 유사분열문은 행동이나 사건을 강조하는 일이 많다. (Downing & Locke, 1992 : 250)

- (170) What he wants is for you to try.
- (171) What she went out for was to get coffee.
- (172) What I'm doing is teaching him a lesson.

위 문장들은 비한정절이 초점위치에 오고 있다. 한편 유사분열문에서 초점이 될 수 있는 동사구는 비상태동사에 한한다. (Quirk et al 1985 : 178) :

- (173) What she did was (to) learn Spanish.
- (174) *What she did was (to) know Spanish.

유사분열문의 초점위치에는 직접화법의 전달내용자체가 사용된 경우도 있고, 강조되는 요소 앞의 be동사가 단수/복수로 사용되기도 한다. (Quirk et al 1985 : 1022, 767)

- (175) a) Dorothy said, My mother's on the phone.
- b) What Dorothy said was 'My mother's on the phone.'
- (176) What we need most is/are books.

영어문장에서는 유사분열의 변이형(variant)으로 볼 수 있는 구문들이 많다. 이들의 주어나 be 동사의 보어요소들은 wh-구가 유도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그들의 강조하고 있는 초점위치도 같아 전달하려는 정보가치도 유사분열문의 그것에 손색이 없다.

- (177) The best thing you can do is write her an apology.
- (178) The thing you should do is show them your diploma.
- (179) All I wanted (to do) was (to) help him.
- (180) Turn off the tap was all I did.
- (181) Somebody I particularly like is John.
- (182) The way you should go is Via Cheltenham.
- (183) The way we make a cake is by following mother's recipe.
- (184) The reason we decided to return was that/because (informal) he was ill.
- (185) The place (where) the accident happened is here.
- (186) The hour at which she must make her decision was fast approaching.

Ⅲ. 존재절과 정보

1. 존재절의 효과

Jespersen(1933a)의 용어로 존재의 there(existential there)라고 하는 예비의 there(preparatory there)를 Kruisinga, zandvoor는 도입의 there (introductory there), Curme은 선행의 there(anticipatory there)라고 부르고 있다. 구정보는 신정보보다 문중에 일찍 나타나는 일반담화 원칙에 따라서 이 존재의 구문 사용은 there가 문두에 나타남으로써 신정보의 진술을 문미로 미루게 되는 것이다. 즉, there는 어떤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나 그 장소를 청자에게 알려 주기 위한 일종의 신호인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존재의 there는 장소의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에 장소를 나타내는 there와는 구별되고, 장소의 there나 그 밖의 부사와 함께 사용될 수도 있다.

(187) There were many people there.

(188) Is there a hotel here?

또 존재의 there는 원래 비확정적 주어 유도를 하기 때문에, 주어에 의하여 이 두 종류의 there를 구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즉, 존재문의 주어에 수반되는 한정사는 a(n), every, few, little, many, no, some, two 등이고, 주어가 대명사일 때도 비확정적 내용을 갖는다.

(189) There's enough of it to see, ain't there?

그러나 다음과 같이 언뜻 보아 한정주어로 보이는 것이 존재문의 주어가 되는 경우도 있다.

1) 비확정적 의미를 나타내는 that, those 등이 주어가 될 때 :

(190) There's that oddest-looking man standing at the front door. (a man of the oddest appearance)

(191) There was that about her made every other woman on the beach seem faded. (= something)

(192) *There are those gentlemen in the park.

2) 형용사류에 의해 수식되고 주어에 the가 붙어 있을 때 :

(193) And now there sounded the faintest 'people'.

(194) ... and then there are the time when I am off duty.

(195) There's the possibility that White might be shielding somebody.

위의 경우 수식어가 없으면 부정관사 또는 무관사로 된다. 위 (193)은 형용사를 수반하고, (194)는 형용사절을 수반하며, 그리고 (195)은 동격절을 수반하고 있다. 따라서 위 문들은 관계구(절) 및 유사한 수식어구가 후속되고 있는 문장이다. 이들은 특정한 것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넓은 의미의 공통개념을 가지는 주어들이기 때문이다.

There-구문에 한정적 주어가 올 수 없다는 원칙에 의하면 다음 문장중 비문법적인 것들에 대한 설명은 명확해진다.

(196) a) *There is the man in the park.

- b) The man is in the park.
(197) a) *There is she in front of the gate.
b) She is in front of the gate.
(198) a) There is Tom in the garden.
b) Tom is in the garden.

There-구문이 문두에만 나타나 있는 것은 아니고 다음과 같이 문중에 나타날 수도 있다.

- (199) If the police hadn't reacted quickly, there could have been a bad accident.
(200) I don't want there to be any more trouble.
(201) I'd like there to be a swimming-pool in the garden.
(202) What's the chance of there being an election this year?

존재문은 일종의 제시문(presentative)이라 할 수 있는데, 제시문에는 다음과 같이 there가 없
이 쓰이는 것도 있다. (이기동, 1992 : 287-88)

- (203) a) Across the street is a grocery.
b) Across the street there is a grocery.
(204) a) *As I recall, across the street is a grocery store.
b) As I recall, across the street there's a grocery store.
(205) a) As you can see, across the street is a grocery store.
b) I can see that across the street is a grocery store.
c) *I can see that across the street there's a grocery store.

(203) a)는 길 건너에 있는 식료품 가게를 실제나 비유적으로 눈 앞에 제시할 때 쓰이는 구문이
고, (203) b)는 길 건너에 있는 식료품 가게를 청자의 의식속에 제시하는 구문이다. (204)에서
'as I recall'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상기하는 것이므로 there가 있는 문장이 문법적이고, (205)
에서 'as you can see'라는 물리적인 지각이 있기 때문에 there가 없는 제시문이 더 적합하다.
이처럼 there-구문은 청자가 의식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되는 개체를 화자가 청자의 의식속에 도
입할 때 쓰이는 구문이다.

다음을 살펴보자 :

- (206) a) Who's in the next room?
b) Sue and Mary.
c) *There are Sue and Mary.
(207) a) What's for supper tonight?
b) *Bread and beans.
c) There are bread and beans.

(206) a)의 화자는 옆방에 누가 있음을 이미 생각하고 있으므로, there-구문이 쓰일 수 없고,
(207) a)의 화자는 저녁에 무슨 음식을 먹을지 모르고 있다고 화자는 생각하므로 there-구문이

쓰여야 한다.

2. 개념적 주어 제약

대체로 비특정 주어만이 존재의 there와 공기할 수 있다. 이것은 본래 신정보가 비한정 한정사에 의해서 유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개 관사를 가리지 않는 단수고유명사가 존재의 there와 함께 나타날 때 부정관사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 같은 고유명사라도 동사 exist와는 같이 쓰이지만, 존재의 there가 없으면 관사가 사용되지 않는다.

- (208) a) There is a Santa Clause.
 b) Santa Clause exists.
 c) *A Santa Clause is.

비특정 주어사용과 관련해서 Quirk et al(1985: 1403)는 “?A bird is in that tree.”와 “?An idea is in his head.”는 어색하지만 “A bird is in that tree which I’ve never seen around here before.”와 “An idea is in his head that the rest of us are against him.”처럼 주어틀 수식하는 구가 있을 때에는 비특정 요소인, 명사가 주어에 사용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이는 신정보의 초점을 문미에 두게 되므로써 가능해진 것이다. 원칙적으로 존재문에 쓰이는 개념상 주어는 통사상 비한정적(indefinite) 요소인 것이다. 이것은 비한정적인 명사구가 화자는 알고 있으나 청자는 모르고 있는 개체를 청자에게 도입하는 데 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정명사구도 존재문에 쓰일 수 있다. 이 경우는 화자나 청자가 모두 알고 있는 개체라 할지라도 주어진 특정한 상황에 이것을 화자가 의식하지 않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청자가 의식하지 않고 있다고 화자가 생각하는 개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한정명사구도 존재문에 쓰인다.

- (209) a) Is there anyone coming to dinner?
 b) Yes, there’s Harry and there’s Bob.
 (210) a) Who of all our friends can we trust?
 b) There’s only John, I am afraid.

존재문은 “there + (auxiliaries) + be + subject + predication”이라는 기본적 틀을 지니고 있다. 이 경우 서술어(predication)는 보어, 부사상당어, 분사 등이 되고 있다.

- (211) There must be something wrong.
 (212) Was there anyone in the vicinity?
 (213) There are plenty of people getting promotion.
 (214) There have been two bulldozers knocking the place flat.

그러나 서술어 없이 단순히 어떤 개체의 존재만을 나타내는 구문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구문들은 문미의 어떤 요소들이 생략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 (215) There was a moment's silenc (at that time).
 (216) Undoubtedly, there is a God (in the Universe).
 (217) Is there any other business (for the committee at this meeting)?
 (218) There must be a more direct route (than the one we're discussing).

위에서 살펴본 것 처럼 존재문은 이미상으로는 동사다음에 개념적 주어를 갖고 있지만, 기능 상에 있어서는 there가 문법적인 주어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Quirk et al (1985 : 1405)는 존재문에서 there가 문법적인 주어임을 주어-동사 수의 일치, yes-no 의문문/부가의문문에서 '주어-동사'전도, 그리고 부정사절과 분사절에서 주어로써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맥락에서 그 타당성을 찾고 있다.

- (219) There's some people in the waiting room.
 (220) Is there any more soup?
 (221) There's nothing wrong, is there?
 (222) He was disappointed at there being so little to do.

한정명사구가 아니면서도 존재문에 나타날 수 없는 명사구들이 있다.

- (223) a) *There was everyone in the room.
 b) *There were all viewpoints considered.
 c) *There is anything John would do for you.

(223) 이 비문법적인 것은 위 문장들의 개념적 주어가 모두 전칭양화사(universal quantification)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화사에는 a(n), some, any, all, every 등과 같은 어휘도 포함되지만, 영어인 양화사 every, all 등은 명사나 명사구와 함께 쓰여 하나의 구를 형성할 때 명사(구)가 지시하는 개체의 대상전체를 지시하기 때문에 비한정적 요소로 취급하기 곤란한 데서 오는 것 같다.

There-구문의 명사구에 제약이 되는 한정표현들은 the, that과 this같은 지시사, 대명사, 소유의 한정사 등이다. 그러므로 there로 시작되는 구문의 주어에 한정표현이 있을 때 그것이 형용사류에 의해 수식이 되는지, 아니면 장소의 there가 아닌지 의심할 필요가 있다.

- (224) *There is John's/his eldest son helping him.
 (225) *There's the screwdriver here !
 (226) There's the book I want— I've been looking for it all week. (local there)
 (227) There at the summit stood the castle in all its medieval splendour. (local there)

Quirk et al (1985 : 374-75)이나 Downing & Locke (1992 : 260-61) 등은 the/this나 소유의 한정사도 신정보를 유도한다고 보고 있다.

- (228) a) There were these three men...

- b) There was this man/place...
 (229) a) There's your mother to be considered.
 b) There's still the washing to be done.

There-구문의 주어자리에 나타날 수 있는 명사구를 화용론적인 것에만 한정했을 때 어려움이 많다. 한정명사구가 나타내는 개체가 화자가 말을 시작할 때까지는 담화세계에 존재하지 않았으나 상대방이 그 개체를 담화속에 꼬집어 들임으로써 비로소 존재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존재문에 나타날 수 있는 명사구는 담화자의 의식세계 보다는 청자의 의식세계에 처음 도입되는 개체를 지칭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제약을 갖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Chafe(1976: 30)가 내리고 있는 "Given (or old) information is that knowledge which the speaker assumes to be in the consciousness of the addressee at the time of the utterance." 라는 구정보의 정의에 따라 "신정보는 발화시 청자의 의식속에 존재해 있지 않은 지식이다."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I saw your father yesterday."에서 your father를 신정보로서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청자가 자신의 아버지를 자신의 기존배경 지식속에 저장되어 있으나 발화시 그 개체를 의식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230) A: Have we any loose cash in the house?
 B: Well, there's the money in the box over there.
 (231) A: Is there anything worth seeing around here?
 B: Well, there's the Necco factory.
 (232) A: Mother, may I watch TV?
 B: Yes, but there is the homework to be finished until tomorrow morning.

이를 요약해서 의문문의 답으로서 존재문에 한정명사를 사용하거나 형용사상당어구의 수식을 받는 경우 존재문의 주어에 한정명사를 또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3. 존재문내의 동사제약

There-구문의 존재의미는 be동사나 존재와 관련된 다른 동사들로부터 비롯된다고 하겠다. 그것은 there-구문이 신정보자격을 가진 개체의 도입을 위해 사용된다는 것과 관련된다. 화자가 청자에게 신정보를 이야기할 때는 청자의 의식속에 새로운 개체를 꺼내는 것이다. 따라서 존재나 그와 관련된 위치, 운동, 출현등을 나타내는 동사들은 there-구문의 역할과 부합하지만 그외의 동사들은 there-구문의 역할과 부합하지 않는다.

존재의 there와 공기하는 be동사 이외의 동사 :

- a) 존재나 위치를 나타내는 동사 :
 exist, live, dwell, stand, lie, remain 등

- (233) There exist several alternatives.

(234) At the edge of the forest there lived an old man.

(235) There remained several questions to be done.

b) 운동이나 방향을 나타내는 동사 :

come, go, walk, run, fly, approach 등

(236) There came three suspicious-looking men down the street.

(237) Along the river there walked an old woman.

(238) There ran out a man from the building.

c) 발생·출현·실현을 나타내는 동사 :

develop, arise, appear, emerge, ensure, happen, occur 등

(239) There arose a conflict.

(240) There appeared/is certain to be something wrong with the engine.

(241) There ensured a dispute.

따라서 존재나 출현에 대립되는 동사, 즉 end, die, disappear 등은 존재문에 쓰이지 않는다.

(242) There began/*ended a riot.

(243) There was approaching/*departing a strange procession.

(244) There lived/*died a king once upon a time.

이와 관련하여 Quirk, et al(1985 : 1408)도 존재문에 쓰이는 동사를 (motion : arrive, enter, pass, come, etc), 개시(inception : emerge, spring up, etc), 위치(stance : live, remain, stand, lie, etc)를 나타내는 동사등으로 하류분류하고 존재문이 SVA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고 있다 :

$$S+V+A \dots \begin{cases} \text{there}+V+S+A \\ \text{there}+V+A+S \\ A+\text{there}+V+S \end{cases}$$

(245) a) There sprang up a wild gale that night.

b) There sprang up that night a wild gale.

c) That night there sprang up a wild gale.

앞에서도 살폈지만 there는 의문문을 만드는 경우 be동사와 어순이 도치되는 등 주어와 비슷한 형세를 하고 있어서 다음과 같은 경우 is가 존재문에 사용되고 있는 것은 there가 단수 유사 주어(pseudo-subject)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246) There's hundred of people on the waiting list.

(247) There's several pages of this book missing.

(248) There's a pen and a pencil on the table.

위 (248)를 복수로 쓸 수 있으나 비문법적이라 할 수 없는 것은 'There is a pen.'에서 말을 마치려하다가 책상위에 있는 연필도 눈에 들어와 a pencil을 덧붙인 문장으로 간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There is+복수명사」의 구문을 포함해서 'There is'는 There's로 줄여 동사의 수의 개념을 흐리게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에 내려지는 정보가치를 무표적 상태와 유표적 상태로 분류해서 연구했다. 또 이러한 정보의 가치는 음운론적인 면, 형태론적인 면, 통사론적인 면, 그리고 의미론적인 면에서까지 반대하게 작용되기 때문에 구어체 영어에서는 음운론적인 강세에 연구의 초점이 맞추었고, 한편 문어체영어에서는 문미초점 외에 분열문과 존재문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통사적인 면에서는 이동, 즉 전치와 후치에 관련하여 정보의 초점을 연구했다. 이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해 말할 수 있다.

문장이 신정보만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경우 청자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며, 구정보만으로 이루어진 문장은 그저 따분하게만 느껴질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가장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한 문장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신정보와 구정보를 어떻게 섞어서 어떤 순서로 제시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영어에서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문장에 있어서 어순상 구정보에 속하는 요소는 상대적으로 앞자리를 차지하고 신정보에 속하는 요소는 뒷자리를 차지한다. 더구나 구정보를 나타내는 명사는 한정적이거나 총칭적인 요소라야 하는데, 그것은 구정보란 청자측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이다. 문맥이 기지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한정적인 명사에 의존하거나 혹은 총칭적인 명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대체로 문장이 한 개의 명사구를 포함하는 한 항상 하나만의 구정보를 전한다. 이 경우 행위자가 있으면 그것이 구정보가 되고, 행위자가 없이 수혜자/착점(beneficiary/goal)이 있으면 그것이 구정보가 되며, 행위자나 수혜자없이 행위자에 대조가 되는 수동자(patient)가 있으면 그 수동자가 구정보를 전하는 명사가 된다.

만일 한문장에 명사가 둘 있으면 수동자는 구정보이고, 처격(location)은 신정보를 전한다. 한편 수동자와 행위자가 한문장 속에 있을 때 행위자는 구정보를 전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통 대조문에서 신정보를 전하는 것은 하나의 항목 뿐이다. 이에 반하여 대조문이 아닌 평범한 문장에서는 명사가 하나가 아닌한 둘이상의 항목이 신정보를 전한다.

분열문은 절의 신정보/주정보가 포함되는 부분과 구정보가 포함되는 부분으로 분리한 결과 생겨난 문장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정보처리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문법적 장치이기도 하다. 따라서 절의 특정한 요소를 주제와 초점의 두가지 면에서 돋보이게 하기 위한 특별한 구문으로서 분열문을 사용한다. 이것은 한개의 절을 각각 자체의 동사를 포함한 두개의 별개 부분으로 나누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어진 듯하다. 분열문은 음조가 나타나지 않는 문어체 영어에서 정

보의 초점을 바르게 표시하는 방법이고, 강조되는 요소는 대조적 초점이 갖는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어, 직접목적 그리고 부사류는 분열문의 초점위치에 오지만 문장의 보어와 간접목적어 그 위치에 오는 일이 드물다고 할 수 있다.

분열문속의 전제를 유도하는 *that*는 초점의 내용에 따라 *wh*-구로 대치가 가능한데, 이 경우 분열문내의 *that/wh*-구와 관계절의 그것과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 그 구별은 전자가 생략될 수 있다면 후자는 생략이 불가능하다는데서 찾을 수 있었다.

또 전자가 초점의 요소로서 고유명사를 취하는데 반하여 후자에서는 그의 선행사로 고유명사를 취할 수 없다는 것도 구별의 기준이 될 수 있었다.

(249) It's Chelsea (that) he lives in. (cleft sentence)

순수한 분열문처럼 유사분열문도 의사 전달에 있어 미리 알고 있는 부분과 새로운 부분의 구분을 분명히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것은 *wh*-구가 이끄는 명사절을 주어 또는 보어로서 포함하는 SVC형의 문장이다. 그러나 *wh*-절을 주어로 가진 형이 유사분열문의 주어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what~is~' 구문에서는 *what*다음에 전제가 되는 부분이 오고 *is*다음에 강조되는 초점이 온다. 유사분열문은 한문장내의 [-human]자질을 가진 요소를 강조할 때 흔히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한편 유사분열문에서 초점이 될 수 있는 동사구는 비상태동사에 한한다.

존재문은 어떤 개체의 존재를 알리는데 사용되는 구문으로서 *there*-구문에 나타날 수 있는 명사구는 발화시 청자가 존재를 인식못했거나 존재하는지 조차 몰랐던 개체, 즉 신정보 자격을 가진 개체를 지칭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따라서 한정명사구는 그것이 지칭하는 개체의 존재가 이미 청자의 의식속에 전제되므로 그것의 존재는 신정보 자격을 갖지 못하며, 또한 전후 맥락이 없는 정상적인 담화의 경우 *there*-구문의 주어로 나타날 수도 있다.

어떤 개체가 신정보자격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그 개체 자체의 특성이 아니라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아야 하겠다. 따라서 존재문에 나타날 수 있는 명사구는 담화자의 의식보다는 청자의 의식에 처음 도입되는 개체를 지칭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제약을 갖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존재문의 주어인 명사구의 제약은 형태론적인 면에서만 따질 것이 아니라 의미론적인 면도 고려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Chafe, W. L. 1976. "Givenness, Contrastiveness, Definiteness, Subject, Topics, and Point of View." *Subject and Topic*, ed. by Charles, N. L. pp. 27-55.
- Curme, G. O. 1931. *Syntax. A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vol. 3. Boston: Heath.
- Downing, A. & P. Locke. 1992. *English Grammar*. Parentice Hall International(UK).

- Ek, A. & J. Robot. 1984. *The Student's Grammar of English*. Oxford : Basil Blackwell.
- Fowler, H. W. 1926. 1965². *A Dictionary of Modern English Usage*. (2nd ed. Rev. Ernest Gowers.) Oxford : Clarendon Press.
- Gundel, J. K. 1977. "Role of Topic and Comment in Linguistic Theory," Reproduced by the Indiana Univ.
- Hornby, A. S. 1975. *Guide to Patterns and Usage in English*. London : Oxford University Press.
- Jespersen, Otto. 1933a. *Essentials of English Grammar*. NY : Holt, Rinehart & Winston.
- _____ 1937. *Analytic Syntax*. London : George Allen & Unwin.
- Quirk, R. & S. Greenbaum. 1973. *A University Grammar of English*. London : Longman.
- Quirk, R., S. Greenbaum, G. Leech & J. Svartvik.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 Longman.
- Roberts, P. 1954. *Understanding Grammar*. NY : Harper & Row.
- Stageberg, N.C. 1981. *An Introductory English Grammar*. 4th ed., NY : Holt, Rinehart & Winston.
- Swan, M. 1980. *Practical English Usage*. London : Oxford University Press.
- Thompson, S. A. & A. Martinet. 1986. *A Practical English Grammar* (4th ed.), London : Oxford University Press.
- Zandvoort, R. W. 1966. *A Handbook of English Grammar*. 5th ed., London : Longmans. Green & Co.
- 이기동. 1992. 「영어동사의 문법」. 신아사.
- 이정민, 배정남. 1990. 「언어학 사전」. 박영사.
- 조성식. 1990. 「영어학 사전」. 신아사.

Summary

A Study on Information Value in English Sentences

Tae-Hong Ko

I studied the information value in the constituents of English sentences in marked and unmarked conditions. Information values are affected by phonological, morphological, syntactic and semantic facts, so that I centered my efforts on stresses in spoken English, and cleft sentences and existential ones in written English. Especially, I was interested in the transformation of information focus by fronting and postponing. The results of study are as follows :

In order to be understood, messages are divided into chunks called information units which are realized in speech by tone units. These do not correspond to any one grammatical category, since the speaker is free to break up the message as he wishes into units which are smaller or larger than a clause. Each tone unit contains an intonation nucleus, which represents the highest point of the focus of information. Information focus extends to the syntactic unit in which the nucleus occurs.

Each information unit contains an obligatory new element and, optionally, a given element, the unmarked order being *Given-New*. The given is the information that is presented as not recoverable by the hearer. The whole tone unit may contain new information, for instance, at the start of a conversational exchange. Unmarked focus falls on the last lexical item of the information unit. If the intonation nucleus is made to fall on some other item it is marked and unequivocally represents new information.

By clefting a clause we divide it into a structure of two components, for the purpose of identifying a particular elements as new information. Of the two parts of the *cleft sentence*, one provides the new information, the other the known or given. Typically, the item following *be* receives the main focus and so represents the new. Subordinate clauses of time, purpose, reason, means and condition (with *only if*) can also be given saliency after introductory "it+be." Another type of clefting is pseudo-cleft sentence.

The identifier is typically the one which receives the greater pitch prominence and so carries the focus of information. It can make explicit the division between given and new parts of the communication. It is essentially an SVC sentence with a nominal relative clause as subject or complement. Clauses with *Who*, *Where*, and *When* are sometimes acceptable, but mainly when the wh-clause is subject complement.

Existential sentence has may simply state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something, as in *there are no fairies*. *There* is not a participant since it has no semantic content, although it has both a syntactic function as subject and a textual function as presentative element. *There* pushes the true subject to the right, placing it under stronger focus. When the subject of existential sentence is an indefinite noun phrase, it introduces new information. Hence, in sentences like "A book is in the cupboard." there is a certain awkwardness, which may be avoided by introducing *there* and postponing the indefinite NP to a non-thematic position : "There is a book the cupboard." Existential sentences are typically expressed by *be*. Other intransitive verbs can be used are *stand, lie, stretch, hang* and *remain*, which express positional states; as well as these are a few intransitive dynamic verbs which express the notion of 'occurring', 'coming into view' or 'arrival on the scene' (*occur, follow, appear, arise, emerge, loom.*)